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7호

2009.1.23 ~ 2009.1.29

I . Analysis Overview 1

II .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6
3. 소비자동향 7
4. 언론동향 12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III . 해외 동향 18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21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1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4

1-1.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4
 문화체육관광부, 29일(목)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 강화와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

1-2. FM라디오 2012년 이후 디지털방송 전환 5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마친 이후 FM라디오 방송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예정 이라고 발표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6

2-1. 음원 불법 다운로드 조장 프로그램 기승 6
 포털 내 블로그 및 카페에 저장 되어 있는 음악을 검색하여 추출하게 해주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유행 중.

2-2. 만인에 미디어, 지난해 매출액 33.4% 감소 6
 만인에 미디어는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86억5943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33.4%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3.2%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9% 증가

2-3. '오리콘 1위' 동방신기 日 싱글앨범, 국내 발매 7
 동방신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의 일본 내 25번째 싱글앨범이 29일 국내에서 발매

2-4. 기타 단신 등 7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009년도 1월 온라인 음원사용료(2008년도 11월분) 분배 공지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7

3-1. 2009년 들어 가장 저조한 음반 판매량 7
 1월 4주 음반 판매량은 2만 장 언저리까지 떨어지면서 새해 들어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 음반 판매량의 급격한 하락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중간층 판매 앨범의 자취를 감추게 만들어.

3-2. 신곡들의 혼잡 양상 11
 소녀시대의 <Gee>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음원의 강세 속에서 바비킴, 린, 가비엔 제이, T 등의 신곡이 각 사이트마다 반응 상승 중.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는 혼잡한 양상의 차트가 지난주의 분위기.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2

4-1. 네오위즈 음악방송 아이팟, 아이폰과 연동 이룬다..... 12
 언론은 29일자 보도를 통해 네오위즈인터넷이 자사 음악방송인 '세이캐스트'를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터치와 아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

4-2. '소녀시대' 각종 음악차트의 1위 점령, 여전한 아이돌의 강세..... 13
 소녀시대가 엠넷, 멜론, 등 음악포털의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음은 물론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인 KBS 뮤직뱅크의 월말 통합차트에서의 1위가 예상. 올 상반기를 강타한 소녀시대의 활약에 많은 언론이 주목.

4-3. 보아, 세븐 등 스타들의 해외 음악시장 공략 본격화..... 14
 보아는 3월 17일 미국에서 첫 앨범 '보아(Boa)'를 발표하고 미국 음악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예정. 세븐 역시 2월 14일 디지털 싱글앨범의 정식 발매를 통해 해외 활동을 가속화할 전망.

4-4. 주요 단신 15
 -디지털 음원시장 '한솔밥 지각변동'
 -드라마·영화 뜨니 'OST' 음반도 뜬다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2조원"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6

5-1. 흥대 인디밴드 합동 콘서트 - 독립음반만세 콘서트 16
 서울 홍익대 앞 KT&G 상상마당은 28일부터 5일 동안 라이브홀에서 독립 음반 만세 콘서트를 개최. 팝과 펑키, 일렉트로닉, 포크 등 각기 다른 장르 음악의 39개 인디 밴드가 참여.

5-2.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산정기준 연구' 발간 16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연구서가 발간되어 향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협상이나 보상금액 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5-3. 서울시 무지개분수 연출음악 추천곡 공모 17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18

1-1. 아일랜드의 소규모 상점들 음원 벌금에 직면..... 18
 아일랜드 음반공연협회(PPI) 소속 음반사들이 작은 상점, 레스토랑 같은 점포들을 '공연료'를 징수대상으로 지목. 가게에서 음악을 재생한 상점 주인들은 '음원 시찰자'들에 의해 조사당하고 있으며 만약 배경음악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더기 고소 불가피 할 듯.

1-2. 영국의 '삼진 아웃' 제도가 폐기 19
 항상 미국 정부를 모방해 불법 파일 공유와 음원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영국정부는 ISP가 이끄는 '삼진 아웃' 정책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폐기.

1-3. 주요 단신..... 20
 ○ BPI가 음원 공유에 대한 정부 관료의 견해에 반발
 ○ Bogdan Roscic, "소니뮤직 클래식"의 지사장으로 임명
 ○ MCS가 Times Group of India와 관리계약 체결
 ○ 유니버설 그룹 직원 감원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21

2-1. 동방신기 '주문' 프랑스에서 '베스트 아시아 앨범'으로 선정 21
 SS501, 신혜성, 강타 등 한류 스타들의 뮤지컬 무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류 팬 꾸준히 증가.
 기존에는 대부분 무언어극을 선호했지만 한류스타들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성 뮤지컬에도 외국인 관람객의 관심 높아져.

2-2. 소녀시대, 태국서 '인기 폭발' 속에 첫 공연 예정 21
 9인조 걸 그룹 소녀시대가 이미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태국에서 오는 2월 초 첫 공연을 가질 예정.

2-3. 가수들 아시아 시장 진출 붐. 22
 국내 주요 가수들은 일본 인기 가수들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고 일본 가요 차트 상위권을 차지. 배우나 탤런트로 입지를 굳힌 한류 스타들도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등에서 콘서트를 열어 가수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 러시.

Ⅱ. 국내 동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1-1.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을 29일(목) 발표했다.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 마련

□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핵심국정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담당부서를 저작권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시켜 효율적 단속 체제를 마련한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오늘 발표된 추진 전략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담아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확인시켰다.

○ 먼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단속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통한 합법적 디지털 유통환경 마련

□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활성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 온라인상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은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해 지고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을 통한 저작권 현안 해소

□ 최근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간간 사회적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저작권 관련 학계와 업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정책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 정책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해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이용 기반 마련

□ 이번에 발표된 '추진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부분이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공정이용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 권리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UCC 분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고소 남발 등에 대한 근원적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저작권 인식제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6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저작권 상담과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2009.01.29]

소셜·음악등 '저작권 거래소'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09.01.29]

문화부,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전자신문 2009.01.29]

문화부, 불법 저작물 24시간 단속 체계 갖춘다 [아이뉴스24 2009.01.29] 외

1-2. FM라디오 2012년 이후 디지털방송 전환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마친 이후 FM라디오 방송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라디오 디지털화를 하면 음질이 좋아지는 장점 외에 주파수 이용측면에서도 전송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으로 기존 아날로그 FM보다 2배 이상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FM라디오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며, 기존 오디오 청취 외에도 양방향 데이터정보, 음악 가사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특히 비디오 전송을 통한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방송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라디오 영역에서도 영상매체와 유사한 형태의 비디오 서비스가 가능해져 비주얼 중심 가수들의 활약이 라디오 영역에서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2012년 라디오도 디지털로 듣는다 [디지털타임스 2009.01.29]

FM도 디지털 전환... '보는 라디오' 시대 열려 [한국경제 2009.01.28]

2. 음악업계 동향

2-1. 음원 불법 다운로드 조장 프로그램 기승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포털 내 블로그 및 카페에 저장 되어 있는 음악을 검색하여 추출하게 해주는 '씨जू크(Cjuke)'와 '개소리넷'이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출을 통한 다운로드가 정상적인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두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관하여 '모든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검색, 다운로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요식적인 표기일 뿐 다운로드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검색 저장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기존 배경음악 파일 형태를 MP3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음원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개인들이 제작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기존 포털들의 불법 방지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음악 다운로드' 불법 프로그램 기승 [파이낸셜뉴스 2009.01.29]

2-2. 만인에 미디어, 지난해 매출액 33.4%감소

만인에 미디어는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86억5943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33.4%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3.2%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9%늘었다.

회사 측은 "콘텐츠 투자 감소, 음원시장의 매출감소, 대여금 및 선급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자산총액2조원이상법인은15%)이상변동 [금융감독원 공시 2009.01.29]
 만인에 미디어, 지난 해 매출액 33.4%감소 [머니투데이 2009.01.29]

2-3. '오리콘 1위' 동방신기 日 싱글앨범, 국내 발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의 일본 내 25번째 싱글앨범이 29일 국내에서 발매된다고 밝혔다. 앨범은 CD와 CD+DVD 2가지 버전으로 선보이게 되며, 총 3곡이 수록돼 있다.

수록곡으로는 한일양국에서 인기를 모은 발라드 곡 'Bolero', 믹키유천의 자작곡 'Kiss The Baby Sky'와 영웅재중이 만든 발라드 곡 '忘れないで(와스레나이데, 잊어버리지마)'가 수록돼 있다.

[관련기사]

'오리콘 1위' 동방신기 日 싱글앨범, 한국서 발매 [마이데일리 2009.01.29]

2-4. 기타 단신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009년도 1월 온라인 음원사용료(2008년도 11월분) 분배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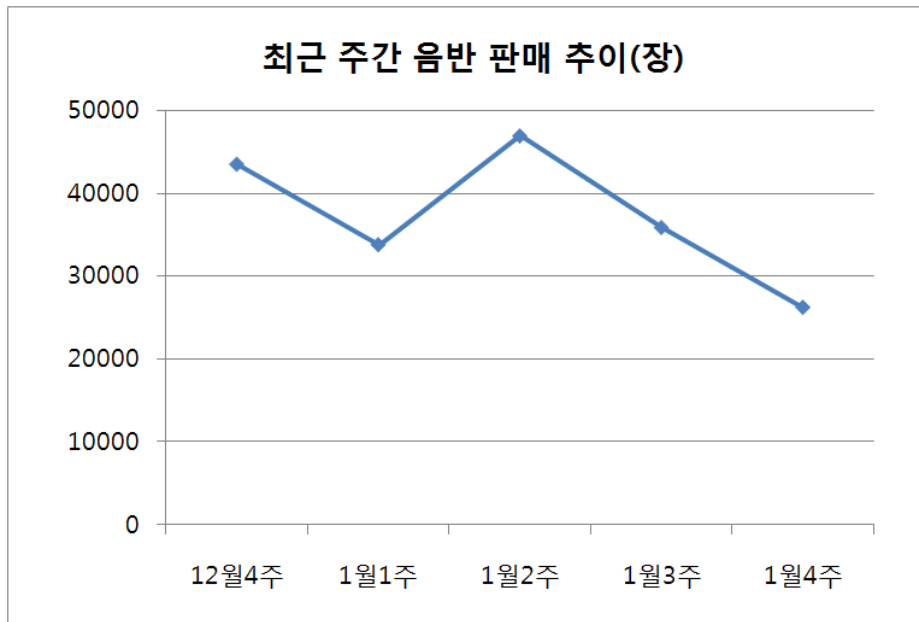
[관련사이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customer/notice.asp?section=view&idx=962>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2009년 들어 가장 저조한 음반 판매량

2009년 1월 4주(1월 22일 ~ 1월 28일)의 음반동향은 지난주 다시 시작된 음반 판매량의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었다. 지난 주 3만 장 이상 판매되었던 음반은 이번 주 2만 장 언저리까지 떨어지면서 새해 들어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 22일 - 28일)

이렇게 까지 음반 판매량이 하락한 것은 새해 들어 출시된 신보의 판매량이 그리 높지 않은 것과 더불어 금주에는 판매력 있는 신보의 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음반 판매량의 큰 하락 속에서 10위권에 속한 음반도 천 장 이하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11위부터의 음반 판매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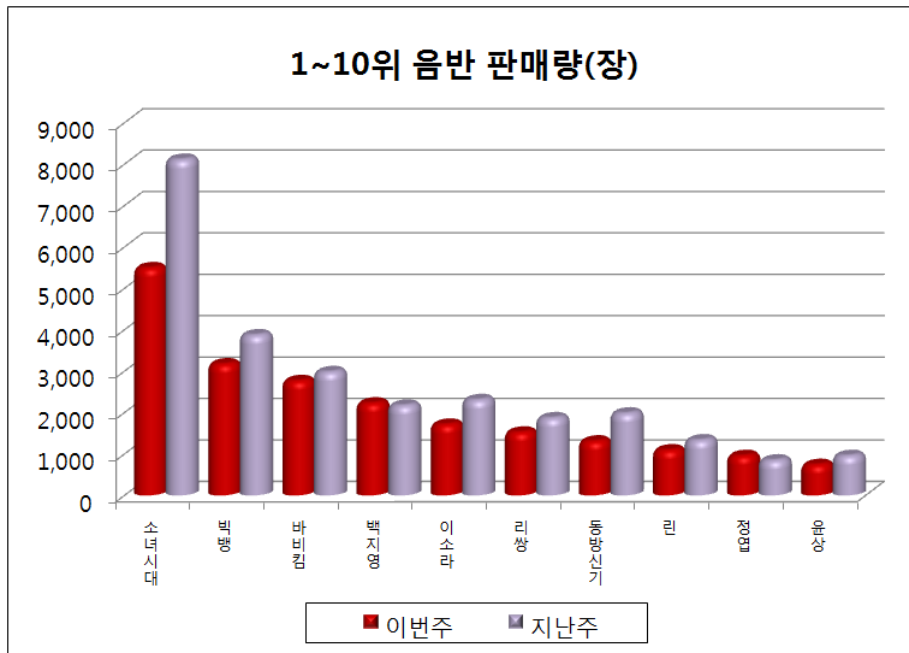
1위에 랭크된 소녀시대의 음반이 5천 장이 넘게 팔리는 반면, 20위에 가까워질수록 주간 음반 판매가 500장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반 판매량의 급격한 하락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중간층의 판매 앨범의 자취를 감추게 했다. 하위권 순위의 음반 역시 새로운 아티스트의 음반은 찾아볼 수 없었고 차트 상위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빅뱅의 옛 음반이 주가 되고 있었다.

음반 차트 내에서 음반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출시된 앨범의 종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얇아진 지갑 탓에 소비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대폭 감소된 소비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적은 수치나마 이뤄지고 있는 소비는 유명 아이돌 위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아래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5,494	8,113	2009-01-07
2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3,172	3,874	2008-11-05
3	-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2,767	2,983	2009-01-12
4	▲1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2,227	2,173	2008-11-14
5	▼1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1,714	2,308	2008-12-17
6	▲2	리쌍 5집 / 백아절현	엔터움	가요	1,525	1,869	2009-01-09
7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309	1,984	2008-09-26
8	▲1	린 5집 / Let Go, Let In, It's A New Day	비타민	가요	1,093	1,336	2008-01-13
9	▲5	정엽 1집 / Thinkin' Black On Me	엠넷	가요	958	850	2008-11-04
10	▲1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742	958	2008-12-11
11	▲8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607	688	2008-09-30
12	▲27	빅뱅 미니앨범 2집 / Hot Issue	엠넷	가요	600	300	2007-11-22
13	▲76	가비엔제이 3집 보너스CD한정판 / 연애소설	비타민	가요	553	100	2009-01-20
14	▲2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526	762	2008-12-04
15	▲20	이은미 6집 / Ma Non Tanto	소니	가요	519	357	2005-11-07
16	진입	빅뱅 1집 / Big Bang Vol.1	엠넷	가요	499	0	2006-12-22
17	▲1	김경록 1집 / People & People	소니	가요	492	735	2008-12-16
18	▼3	김종국 5집 / Here I Am	엠넷	가요	472	769	2008-10-22
19	▲39	샤이니 1집 리팩 / Amigo	에스엠	가요	445	200	2008-10-29
20	▲25	빅뱅 미니앨범 1집 / Always	엠넷	가요	438	200	2007-0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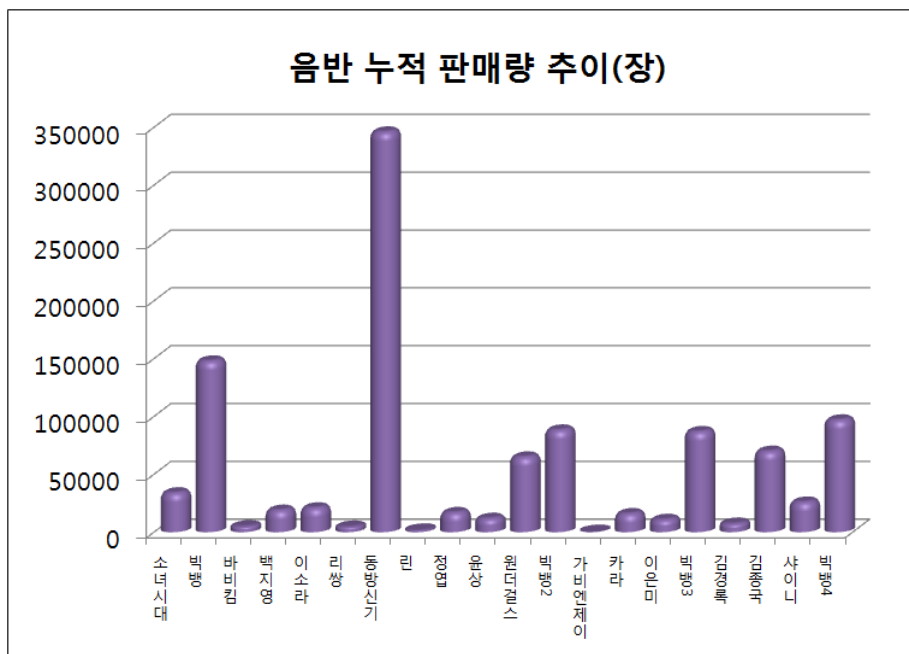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월 22일 - 29일)

타이틀 곡을 바꿔서 활동을 시작한 백지영, 항상 꾸준한 판매고를 보였던 정엽 등을 제외하고는 10위권의 음반 대부분이 지난주에 비해 판매량이 하락한 모습이다. 이에 비해 하위권의 이은미, 빅뱅, 샤이니 등의 음반은 판매량 자체는 매우 적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큰 폭의 판매량 상승을 보여주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22일 - 28일)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줄곧 선두를 달리던 동방신기의 음반의 경우 35만 장을 눈앞에 둔 상태이며 다른 음반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판매량의 하락 속에서 20위권으로 들어온 빅뱅의 기존 앨범들이 스테디셀러답게 10만 장에 가까운 누적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24일, 단 이은미 앨범의 경우 08년 1월 26일부터 09년 1월 24일까지)

1월 4주의 음반동향 차트의 경우 상위권은 소녀시대와 빅뱅 같은 아이돌이 선두에 서 있었고

그 뒤를 바비킴, 백지영 같은 중견가수들이 밀고 있었다. 하지만 10위 권대부터 급격하게 음반 판매량이 하락하면서 전체 음반 판매량은 2만 장대에 머무르고 말았다. 설 연휴까지 있었던 주간이었지만 음반 판매량은 오히려 더욱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언제쯤 연초의 저조한 성적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인내가 필요해지는 시기이다.

3-2. 음원동향 : 신곡들의 혼잡양상

1월 4주의 음원동향은 지난주 전 차트를 석권한 소녀시대의 <Gee>의 강세는 전체적으로 계속 되었지만 각 사이트마다 기존 곡의 자리매김과 신곡의 진입으로 순위의 혼잡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주 음원차트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꽃보다 남자> 음원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주 차트로 진입한 <꽃보다 남자>의 O.S.T들은 여전히 여러 곡이 동시에 인기를 얻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메인테마 곡인 티맥스의 <파라다이스>와 엔딩 곡으로 자주 쓰이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는 멜론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서 10위권으로 진입해 있었다. 도시락의 경우 5위권으로 두 곡 모두 랭크되어 있었다.

또한 새해가 되면서 조용하게 차트 안으로 진입한 가비엔제이의 <연애소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눈에 띄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은 이 노래는 4개 사이트 모두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며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주 차트로 진입한 바비킴과 린의 신곡 역시 사이트에 따라 기복은 있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반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음원차트로 진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T(윤미래)와 애프터스쿨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오랜만에 음반을 출시한 업타운 출신의 보컬 T(윤미래)는 <떠나지마>라는 발라드 곡을 발표하였다. 이 곡은 현재 모든 사이트의 차트에 빠르게 진입하여 대부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손담비 그룹으로 알려진 애프터스쿨의 <AH>는 여러 방송을 통해 비주얼로 승부를 하면서 음원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곡들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곡이지만 4개 사이트의 순위를 비교해볼 때 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순위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순위권임에도 랭크된 곡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할 수 없는 혼잡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음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마다 프로모션 방향과 집계방법이 다른 사이트 체계가 낳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풀이된다.

금주 음원차트는 <꽃보다 남자> 음원의 여전한 강세 속에서 바비킴, 린, 가비엔 제이, T 등의 신곡이 각 사이트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는 혼잡한 양상의 차트가 나오면서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음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다.

순위	박스 1/15 ~ 1/21	엠넷 1/19 ~ 1/25	도시락 1/19 ~ 1/25	멜론 1/18 ~ 1/24
1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동방신기 / 주문	소녀시대 / Gee
2	린 / 사랑 다 거짓말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소녀시대 / Gee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3	바비킴 / 사랑 그놈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티맥스 / 파라다이스	케이윌 / 러브119
4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김경록 / 이젠 남이야
5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카라 / Pretty Girl
6	티맥스 / 파라다이스	린 / 사랑 다 거짓말	티 / 떠나지마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7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티 / 떠나지마	바비킴 / 사랑 그놈	빅뱅 / 붉은노을
8	리쌍 / 챔피언	티맥스 / 파라다이스	애프터스쿨 / AH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9	애프터스쿨 / AH	SS501 / U R Man	썸데이 / 알고있나요	SS501 / U R Man
10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빅뱅 / Stylish (The FILA)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린 / 사랑 다 거짓말
11	김경록 / 이젠 남이야	케이윌 / 러브119	린 / 사랑 다 거짓말	린 / 매력쟁이
12	썸데이 / 알고있나요	바비킴 / 사랑 그놈	샤이니 / Stand by me	럼블피쉬 / 비와 당신
13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김경록 / 이젠 남이야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14	티 / 떠나지마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케이윌 / 러브119	빅뱅 / Stylish (The FILA)
15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카라 / Pretty Girl	언터처블 / Tell me why
16	나몰라 패밀리 / 내 사랑 로맨스	빅뱅 / 붉은노을	SS501 / U R Man	빅뱅 / Wonderful
17	예인 / 한 때	애프터스쿨 / AH	리쌍 / 챔피언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18	카라 / Pretty Girl	이은미 / 애인있어요	언터처블 / Tell me why	원더걸스 / Nobody
19	언터처블 / Tell me why	샤이니 / Stand by me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티 / 떠나지마
20	SS501 / U R Man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란 / Never Say Bye	애프터스쿨 / AH

4. 언론 동향

4-1. 네오위즈 음악방송 아이팟, 아이폰과 연동 이룬다

언론은 29일자 보도를 통해 네오위즈인터넷이 자사 음악방송인 '세이캐스트'를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터치와 아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알렸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폰, 아이팟 등의 애플기기 사용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쉽게 '세이캐스트'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러한 연동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먼저 '세이캐스트'가 음악방송으로서의 저변과 흥행요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 인터넷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이캐스트'는 서비스 개시 7일 만에 앱스토어 무료 엔터테인먼트 분야 1위에 오른바 있다.

이렇듯 음악방송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세이캐스트'에 아이팟과 아이폰이라는 검증된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고 보이며 특히, 오는 4월 국내에서 휴대전화 '위피'(WIPI) 탑재 의무가 해제됨으로 인해 아이폰의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세이캐스트'는 단순 연동을 넘어서 아이팟과 아이폰의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질 개선도 꾀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이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설치 후 기기를 가볍게 흔드는 것으로 새로운 음악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기능을 제공하며 손가락 터치만으로 간단하게 볼륨조절과 채널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는 아이뉴스의 29일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기반의 인프라 생태계에 발맞춰 세이클럽의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타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 세이클럽 음악방송, 아이폰과 만나다 [아이뉴스24 2009-01-29]
- 네오위즈 음악방송 아이팟으로 듣는다 [연합뉴스 2009-01-29]
- 네오위즈, 아이폰용 음악방송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이낸셜뉴스 2009-01-29]
- 네오위즈, 음악방송 솔루션 앱스토어 판매 [아시아경제 2009-01-29]

4-2. '소녀시대' 각종 음악차트의 1위 점령, 여전한 아이들의 강세

9인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열풍이 각종 음악차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소녀시대가 엠넷, 멜론, 등 음악포털의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음은 물론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인 KBS 뮤직뱅크의 월말 통합차트에서의 1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올 상반기를 강타한 소녀시대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특히 두드러진 아이돌 스타들의 가요계 평정은 올 초 빅뱅, 동방신기, 원더걸스 등이 일제히 국내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한풀 꺾이는 듯 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의 여성그룹 '소녀시대'가 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녀시대는 뮤직포털 엠넷이 제공한 1월 넷째 주(1.19~1.25) 차트에서 다시 한 번 1위를 차지하며 3주째 종합 1위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 24일 발표된 주간 인기가요 순위 '멜론차트'에서도 역시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또한 30일 방송되는 KBS의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달성했음은 물론 3주 연속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는 아이돌의 열풍은 두각을 나타내는 소녀시대 외에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아이돌 그룹 SS501은 그룹의 리더 '김현중'이 드라마에서 대활약 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U R Man'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3인조 SS501'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를 비롯하여 일본 활동을 본격화 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

소녀시대의 열풍은 물론 아이돌 그룹들의 드라마 진출과 그 OST를 비롯한 해외활동 등, 가요계와 음악 산업에 대한 언론의 시선이 여전히 아이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의 빈자리는 아이돌만이 메울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요순위> 소녀시대 3주째 1위 행진 [연합뉴스 2009-01-24]
 소녀시대 지(Gee), 엠넷차트 3주 연속 1위! [조선일보 2009-01-28]
 아이돌 스타들 휴식잇은채 맹활약 [헤럴드 생생뉴스 2009-01-29]
 소녀시대, 3주만에 '뮤뱅' 입성! 통합차트도 1위 할까? [OSEN 2009-01-28]

4-3. 보아, 세븐 등 스타들의 해외 음악시장 공략 본격화

보아와 세븐 등 해외 음악시장 공략을 준비하던 스타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특히, 보아는 3월 17일 미국에서 첫 앨범 '보아'(Boa)를 발표하고 미국 음악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예정이며 세븐 역시 2월 14일 디지털 싱글앨범의 정식 발매를 통해 해외 활동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보아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싱글 형식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데뷔곡 'Eat you up'을 발표하며 문을 두드렸고 빌보드 핫 댄스클럽플레이차트의 최신 차트에서 12위에 오르는 등 가능성을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정식 앨범의 발매를 통해 빌보드 메인 차트의 진입을 노리는, 본격적인 미국 음악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보아의 음반은 미국 팝시장에서 주목받는 프로듀서인 '브라이언 케네디'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 29일자 보도자료 참조)

세븐 역시 최근 2년여 간 미국 진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2월 중순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 정식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5월 미국 LA의 한 클럽에서 현지 첫 프로모션을 가진 이후 12월에는 시애틀 무대에서 서는 등, 그 간 미국 주류 대중음악 시장 진출을 모색해 온 바 있다. (스타뉴스 29일자 보도자료 참조)

한편 보아와 세븐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계획한 가수들의 행보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요계를 평정했던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발표한 25번째 싱글 '볼레로'로 오리콘 주간차트(27일 발표) 정상에 등극했으며 빅뱅과 비, 원더걸스 등 국내 대형 스타들의 해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이뤄져 한류를 새롭게 일으키려는 스타들의 행보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세븐, 2월14일 美데뷔곡 현지 전격 공개 [스타뉴스 2009-01-29]
 '월드보아의 봄' 빌보드 혼돈다 3월 17일 미국 첫 정식앨범 'BoA' 발표 동아일보 2009-01-29]
 2008 가요계 빅스타, 올해는 해외진출 장외 대결 [마이데일리 2009-01-26]
 동방신기, 오리콘 주간차트 4회 연속 1위 [스포츠칸 2009-01-27]

4-4. 주요 단신

○ 디지털 음원시장 '한술밥 지각변동'

최근 이동통신 3사는 각각 국내 굴지의 음악 콘텐츠 회사들에 음악서비스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음악 서비스 통합 운영 파트너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것.

[관련기사]

디지털 음원시장 '한술밥 지각변동' [헤럴드경제 2009-01-23]

○ 드라마·영화 뜨니 'OST' 음반도 뜬다

영화와 드라마 일부 OST곡의 인기가 흥행과 시청률 호조에 힘입어 급상승하고 있다.

[관련기사]

드라마·영화 뜨니 'OST' 음반도 뜬다 [세계일보 2009-01-28]

○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2조원"

영화, 방송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2조원" [디지털타임스 2009-01-29]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흥대 인디밴드 합동 콘서트 - 독립음반만세 콘서트

서울 홍익대 앞 KT&G 상상마당은 28일부터 5일동안 라이브홀에서 독립음반 만세 콘서트를 열고 팝과 펑키, 일렉트로닉, 포크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의 39개 인디 밴드가 참여한다.

<주요일정>

-1월 28일(수) pm7:00

oz, dydsu, 정미영밴드, 화나

-1월 29일(목) pm6:00

치즈스테레오, 프리키, 부부밴드, 악통, 퍼니피플, 그린치즈, ynot?, 검정치마, 핑카브릭&부숫다

-1월 30일(금) pm6:00

RUX, 스팟라이트, 폰부스, Demicat Live Set, 전영진밴드 YJ Plus, wHOOL, Suttle Loop, 나폴레옹다이나마이트, 99ANGER

-1월 31일(토) pm5:00

인디언수니, 강허달림, 김마스타트리오, Main Street, 건훈씨, iNoo, 루네, 조성아, 오르겔탄츠, zy

-2월 1일(일) pm5:00

지하드, 사일런트아이, 알케미스트, Med Fret, 퀸즈네스트, Swimmin's Fish, 사형집행단

[관련사이트]

KT&G 상상마당 <http://www.sangsangmadang.com/>

5-2.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산정기준 연구' 발간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저작물 전달 방식인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국내 현황과 보상금 요율 협상 과정 및 협상 결과, 보상금 요율 변동에 따른 수익구조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업체 및 디지털 공연권 관리단체,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외국의 실태조사와 사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협상이나 보상금액 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문의]

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02-2669-9935, 가격 : 각 5,000원 2009.01.29

5-3.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무지개분수 연출음악 추천곡 공모

- 응모기한 : 2008. 1. 22(목) ~ 2. 28(토)일까지
- 응모자격 : 모든 시민
- 응모절차 : 붙임양식의 "무지개분수 음악 추천서" 제출
※ 단, 인터넷 공모시 인터넷 안내에 따라 공모(양식 불필요)
- 응모방법
 - 가.인터넷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나.우 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동아일보 빌딩 14층 설비부 무지개분수 음악공모 담당자 (우 120-715)
- 선정기준
 - 장르별, 세대별 가장 많은 추천 우선 순으로 20곡을 선정
예시) 장르별(가곡-클라식-연주음악, 외국가요-가요-민요등),
- 당선작 발표 : 2009. 3월중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응모자 시상 : 무작위로 2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지급
- 기타사항
 - 분수음악은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나 1인당 3곡이하만 추천을 받습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관련기사]

관련사이트 http://www2.seoul.go.kr/event/e_090121_music/info.html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아일랜드의 소규모 상점들 음원 벌금에 직면

음반회사의 경영자들이 벌금을 매기기 위해 상점과 레스토랑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작은 상점들과 중국식 레스토랑 같은 작은 점포들은 아일랜드 음반 업체의 '공연료'를 징수할 대상이 되었다. 자신들의 가게에서 음악을 재생한 아일랜드의 상점 주인들은 음반 회사들이 파견한 '음원 시찰자'들에 의해 조사당하고 있으며 만약 배경음악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소당한다.

음반 업계의 경영자들은 인터넷 해적 행위 때문에 전통적인 수입원에서 생기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PPI(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는 상업적 배경음악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작은 상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수십 개의 사업체들이 지방 법원에서 2천유로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PPI는 음반 업체들을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만 5천개의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PI의 시찰자들은 그 장부를 보고 아일랜드 전역의 업체들을 대조하고 점검한다.

SFA(Small Firms Association)의 대표인 Patricia Callan은 음원 사용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그 후 몇몇 업체들은 아예 음악 재생을 중단해 버렸다고 말한다.

Callan에 의하면 대부분의 SFA 회원들이 이미 IMRO(Irish Music Rights Organisation)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고 근본적으로 같은 것에 대해 왜 다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PPI는 IMPO가 독립된 단체이므로 사업체들은 양측 모두에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음반 업체들에 의한 비슷한 단속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 PRS(Performing Right Society)는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왔고, 그들이 소규모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안 공격적인 정책의 사용은 소송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작년에는 6억 파운드(6억2800만 유로)의 저작권료를 징수 했는데, 이것은 2007년보다 8%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반면에 CD판매고는 줄어들고, 불법 다운로드도 증가했다.

PRS는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를 했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56만

7천통의 편지를 보냈다. 라이선스는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수 파운드에서 수천 파운드까지 매겨질 수 있다. 술집이나 클럽 등이 명백한 대상이지만 수천 통의 편지나 전화의 대상은 자신들의 애완동물을 달래기 위해 개집이나 고양이 집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심지어는 음원 해적행위를 하는 경찰소까지 포함한다.

PRS의 대변인은 영국 기업 등록소와 전화번호부에서 정보를 얻고,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PPI의 배경음악 라이선스 비용은 '소리가 들리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PPI는 또한 이발소, 주차장 그리고 직장 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용료도 가지고 있다. 댄스 교사들은 자신들의 강좌에 얼마나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스포츠 경기장은 그들의 평균 관객 수에 따라 요금을 낸다.

PPI의 대표인 Sean Murtagh는 음악을 재생하는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음반 회사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하지만 이것이 가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영리가 목적이려면 모두 라이선스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Small firms face fines over music, Times Online, UK, 2009-01-25

1-2. 영국의 '삼진 아웃' 제도 폐기

지난 몇 년간 영국은 미국 정부를 모방해 불법 파일 공유와 음원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의 기초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이끄는 '삼진 아웃' 정책은 폐기되었다. 이 정책은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사용자들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RIAA(Record Industrial Association of America)는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기보다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음원 해적 행위가 더 강해짐에 따라 폐기 되었다.

영국의 RIAA인 BPI(영국음반산업협회 :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는 이러한 움직임에 조금 늦었지만 2008년에 우리는 이 단체가 불법 음원 공유를 막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을 겁주었는지 보았다.

이제 인터넷 연결을 중지해 버리는 책임은 ISP에게로 넘어왔다. 초창기 '삼진 아웃'제도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Virgin Media가 이러한 조치에 처음으로 찬성한 ISP가 되었지만, TalkTalk의 CEO가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면서 모든 ISP가 이러한 역할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첫 암시를 주었다.

그들은 계속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그들의 인터넷 연결을 끊을 수 있다는 수백 통의 편지를

불법 파일 공유자들에게 보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타임지의 인터뷰에서 지적 재산권 각료인 David Lammy이 그 제도가 정말 실현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복잡한 법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삼진아웃 제도는 항상 다루기 힘들고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심각한 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단 기간에 해결하려는 제도이기도 했다.

음원해적행위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삼진아웃제도가 폐기됨으로써 당신은 최소한 인터넷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관련기사]

UK 'three strikes' rule for music pirates abandoned, TECH.BLORGE.com, Australia, 2009-01-27

1-3. 주요단신

○ BPI가 음원 공유에 대한 정부 관료의 견해에 반발

정부의 지적 재산 각료인 David Lammy가 영국정부의 음원 해적행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영국음악을 호텔 무료 비누에 비유한 발언을 해 BPI(영국 음반산업협회 :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의 반발을 사고 있다. BPI의 공무담당부서장인 Richard Mollet은 이것은 지적 재산권을 책임진 관료가 음악과 불법 공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BPI는 정부에게 음원 해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약속을 이행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관련기사]

BPI angry at UK minister over file-sharing, Hollywood Reporter,US, 2009-01-26

○ Bogdan Roscic, "소니뮤직 클래식"의 지사장으로 임명

Bogdan Roscic이 Sony Music Classical의 부장이 되기로 했다고 26일 Sony Music Entertainment의 CEO인 Rolf Schmidt-Holtz가 밝혔다. 신설된 직위에서 Roscic은 Sony Music의 클래식 음악 시장에 대한 경영 분석을 감독하고 Schmidt-Holtz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Schmidt-Holtz는 Roscic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Sony의 클래식 사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Bogdan Roscic To Join Sony Music Entertainment as President, Sony Music Classical, PR Newswire (press release), NY, 2009-01-26

○ MCS가 Times Group of India와 관리계약 체결

AIM(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이 소유하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인 MCS(Music Copyright Solutions)가 Times Group of India와 장기간의 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MCS가 Times Group of India의 다양한 영화와 엔터테인먼트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반 출판 분야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MCS는 공연 수입과 2차적 권리도 보유하게 되며 이것 또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기사]

Music Copyright signs administration deal with Times Group of India, SmallCapNews.co.uk, UK, 2009-01-27

○ **유니버설 그룹 직원 감원**

음악 산업도 오늘날 국민들의 대다수가 경함하고 있는 경제적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1월 26일에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12명을 해고했다.

[관련기사]

Universal Music Group Makes Staff Cutbacks, Urban Network, CA, 2009-01-27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동방신기 '주문' 프랑스에서 '베스트 아시아 앨범'으로 선정

최근 프랑스의 일본음악 전문 사이트 'minu-net'에서 진행한 '프랑스 J-music 어워즈 2008' 투표에서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이 11.7%의 득표율로 '2008 베스트 아시아 앨범'(Best asian album of the year 2008)로 뽑혔다. 뒤를 이어 이효리의 '이츠 효리시'가 6.1%로 2위에, 대만의 인기가수 차이어린의 '러브엑서사이즈'가 5%로 3위를 차지했다. 빅뱅의 '넘버 1'과 주걸룬의 '카프리콘'이 공동 4위에 올랐고, 비의 '레이니즘'은 7위에 랭크됐다.

'베스트 아시아 앨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가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동방신기 '주문' 프랑스에서 '베스트 아시아 앨범'으로 선정돼 스포츠조선 2009.01.29]

2-2. 소녀시대, 태국서 '인기 폭발' 속에 첫 공연 예정

소녀시대는 2월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SM타운 라이브 투어' 콘서트에 참여한다. 이로써 소녀시대는 지난 2007년 8월 데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태국 무대에 서게 됐다.

소녀시대는 이번에 태국에서 첫 공연을 열게 됐지만, 이미 현지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1집 수록곡 '키싱 유(Kissing You)'는 지난해 MTV 태국 인터내셔널 차트(MTV Thailand International Chart)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녀시대의 첫 공식 방문에 태국 팬들이 벌써부터 설레 하고 있다"며 "소녀시대도 태국 팬의 큰 사랑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번 공연에서 보다 멋진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M타운 라이브 투어' 태국 콘서트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도 함께 한다. 'SM타운 라이브 투어' 태국 공연은 당초 지난해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부득이하게 2월 초에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

소녀시대태국, '한류여신' 2월 한국재경신문 - 2009년 1월 22일

소녀시대 태국, "태국에서 우리 인기 상상 초월입니다" 투데이코리아 - 2009년 1월 22일

소녀시대 첫 태국 방문 '新 한류여신 등극 초읽기' 중앙일보 - 2009년 1월 22일

2-3. 가수들 아시아 시장 진출 붐.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 휘몰아쳤던 드라마 한류는 시들한 상태지만 가수들이 한류(寒流)로 전락해 가고 있는 한류(韓流)를 되살려내는 주역으로 등장했다. 국내 주요 가수들은 일본 인기 가수들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고 일본 가요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거나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등에서 콘서트를 열어 수만명을 동원하고 있다. 배우나 탤런트로 입지를 굳힌 한류 스타들도 최근 들어 가수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배우 이준기도 가수로 변신한다. 그는 히트곡 제조기로 알려진 작곡가 김형석과 손잡고 오는 3월 발라드, 댄스, 록 등의 장르를 포괄하는 5곡 정도의 노래로 디지털 싱글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발매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앨범을 선보인다. 그는 싱글 발매 직후 1만 명이상의 국내외 팬을 초청하는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탤런트 류시원도 7월에 일본에서 새로운 싱글 음반을 내고 전국 투어도 가질 예정이다. 그가 지난해 12월2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연 단독 공연에는 3만5000여명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연기자인 박용하는 일본어 음반을 내는 등 가수로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음반 구매 사각 계층으로 분류됐던 30대 중반 이상 일본 여성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중국 난징(南京) 올림픽체육관에서 연 '아시아투어'에서 2만 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일본의 경우 신혜성, 전진, 휘성, 테이, SG 워너비 등은 31일 일본 도쿄(東京) 한복판인 국제포럼 A홀에서 'K-팝 슈퍼 라이브'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2월에 태국에서 소속 가수들의 합동 콘서트를 연다. 오는 2월7일 태국 방콕의 라자반 갈라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여는 'SM타운 라이브 인 방콕' 콘서트 무대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등이 오를 예정이다.

이 같은 한국가수들의 활발한 아시아시장 공략으로 대중음악분야의 한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한류의 기반을 넓힐지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사]

'가요 韓流' 다시 불 붙인다 문화일보 2009-01-28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